

목포시 1, 2심서 패소하고 또 상고

삼양사 사료공장 이전협상 ‘지지부진’

주민들 “합의 더 어렵게 만드나” 우려도

목포시가 목포 삼양사 사료공장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삼양사는 1970년 목포시 석현동 816번지에 공장을 준공, 가축사료를 생산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3년과 2006년 삼양사 주변에 들어선 근하네 오빌(258 세대)과 블루빌(447 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삼양사 사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에 시달린다며 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 2007년 10월 삼양사 목포사료 공장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삼양사는 이를 불복해 조업정지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1심 소송에서 “목포시가 2년간 4차례에 걸쳐 측정한 소음 수치를 근거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감정 촉탁결과 이를 수치는 공장 주변의 암소음(배경소음)이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목포시가 측정한

올 교육역량 강화사업

목포대 ‘우수대학’ 선정

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주관의 ‘2010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사업계획 컨설팅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우수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목포대는 1억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돼 2010년에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고지원금이 총 33억 8200만원에 달하게 됐다.

3년연속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목포대는 ▲취업역량 ▲장학 지원 역량 ▲교수학습 역량 ▲교육환경 역량 ▲국제역량 등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중점분야를 설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청소년 우주비행 체험

지난 9일 개관한 국립 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를 찾은 청소년들이 우주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 센터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소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장지원 우주체험 캠프를 진행한다. <고흥군 제공>

신안 율도에 세계적 관광휴양타운

희귀종 등 6만그루 식재 식물원·펜션리조트 조성

신안군 지도읍 율도에 세계적 휴양형 식물원과 펜션 리조트 등 관광휴양타운이 조성된다.

지난 2007년 신안군과 설 개발 협약을 체결한 주도개발은 200만㎡의 섬에 세계적인 식물원과 300㎢ 규모의 펜션 단지·풀빌리 골프장(6홀)·희귀식물 연구소 등을 갖춘 ‘비파랜드’를 조성하고 있다.

식물원은 현재 세계적 휴양바로 밥 나무를 비롯해 제주도에 심어져 있는 모든 수종의 난대성 수목과 활

엽수 등 6만여 그루를 심어 공정률이 80%에 이르고 있다. 또 세계 최대 크기의 나무화석과 희귀 돌을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왔다.

식물원과 함께 500명 수용의 연수원·야외 수영장·마니아 및 해양 스포츠 시설·태양광 전기를 이용한 인공 폭포·그리스 유적지 재현·승마장·세계 최대의 예수 동상·해수면 휴게소 등도 들어선다.

12일에는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찾아 개발사업이 본격화된 율도를

둘러보며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율도는 지도 남서쪽의 간석지 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목포시에서 북서쪽으로 32km 거리에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님기자 wncho@

여수시의장 김영규



여수시의회는 12일 제126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4선 김영규(53) 의원, 부의장에 서완석 의원을 선출했다.

/동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합평 친환경 벼 재배단지

‘긴꼬리투구 새우’ 발견

합평군 해보면 대창리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단지에서 환경부 지정 멀종 위기 암생동물 2급인 ‘긴꼬리투구 새우’가 발견됐다.

긴꼬리투구새우는 농약 사용이 일 반화되면서 지난 1990년을 전후해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친환경농업이 늘면서 발견 횟수가 늘고 있다.

한편 긴꼬리투구새우는 3억년 전 고생대부터 모양이 변하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며 꼬리부분을 포함한 전체 길이는 3~5cm 정도이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현대공인증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사무 우편번호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 매매

- 광산구 수원동 자연녹지 매매 6억 원, 물류창고, 교회, 묵당원, 식당, 풍차, 유이원, 대형차 진입 가능
- 매월동 준공업지역 2780㎡(841평) 매도가 22억 원

갈수 간 도로변 대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개발공사지가 6, 대지, 3층·5층 5천만원 기능 준주거지역, 전시장, 카 센터, 사옥적합

마륵동 대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사령실 뒤면 도로변, 생산녹지 860㎡(260평) 매매가 7억 8천만원

벽진동 항고, 공장부지

- 벽진동 697㎡(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매가 2억 4천만원

광산구 1종 일반주거지역 매매

- 신수동 1744㎡(528평) 대도가 1억 8천만원

박동 645㎡(195평), 648㎡(196평) 매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나주 남 평 토지 매매

- 풍림리,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집, 짐동지 2951㎡(893평) 공장, 창고 등 용도 다양 매도가 2억 9천만원

건 물 매 매

- 수의실 좋은 철물 상가 매매

- 쌍촌동 대지 367㎡(110평)/건평 1233㎡(37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동탕(직영)

- 상가 일대로 보증금 1억 9천만원 월 340만원 대출 이자 8천만원 매매가 12억 5천만원

공동 창고·길상 매매

- 광산구 우산동 대지 2975㎡(900평)/건평 594.5㎡(180평) 비광장 인근, 대형차 진입 가능, 매도가 7억 8천만원

아담공인증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건물구함(병원·요양원·리모델링용)

- 광주시내 전지역, 연면적 1,000평 이상

지연녹지(자동차관련시설, 차고지기기타)

- 서구 벽진동 서광주역 인근 6,561㎡(1,985평)

3.3㎡당 52만원

비단가 전원주택(교환기능)

- 학평동 순례별 월전리 압수해수욕장 인근

- 대지 및 전 10,685㎡(3,232평) 연면적 178㎡(53평), 2층, 교환 가능화 조망권 양호, 앞에 서해바다가 펼쳐져 있다.

매매가 3억

나대지(종교시설·요양원·기타)

- 서구 성종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마사

- 1,845㎡(568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m진입로 폐매가 3.3㎡당 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적지

호남대 부근 자연녹지

- 광산구 성안동 호남대 앞 3,458㎡(1,046평) 8,33㎡당 110만원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위원회 조성당첨

전원주택·종교시설용도

-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60만원

- 자연녹지지역, 보궐기능

무동산 전원주택지

- 북구 회암동 대지 437㎡(131평), 전 19.1㎡(603평) 구 주택

- 상가 일대로 보증금 1억 9천만원 월 340만원 대출 이자 8천만원 매매가 12억 5천만원

건물구함(병원·요양원·리모델링용)

- 광주시내 전지역, 연면적 1,000평 이상

■ 민선 5기 단체장에 듣는다

서기동 구례군수

“관광객 1000만명 유치 전력”

“민선 5기가 끝나는 2014년이면 구례는 3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인구를 현재 2만7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찾는 관광구례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민선 5기 포부를 밝혔다.

구례군은 한때 인구가 7만명에 가까웠으나 지난 2005년 이후 3만 명선이 무너진 상태로 일자리와 교육문제, 지역경제가 좌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군수는 내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용방 농공단지 조성사



또 올해 아생화 특구로 지정받은 구례군은 318억원을 들여 오는 2013년 완공 목표로 전국 최대의 ‘지리산생태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제일의 관광과 휴양의 고장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민선 5기 주요 시책으로 ▲찰사는 농촌육성 ▲마음이 따뜻한 복지 ▲군민이 활짝 웃는 문화·예술 및 레저스포츠 정책 등이 마련됐다.

복지, 문화·예술 및 레저스포츠 정책 역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생명체험학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2012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스포츠클럽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축구와 태권도 등 전국적인 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담고 있다.

서 군수는 첨진강과 지리산에 수상레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지리산에 ‘자전거 둘레길’ 개발 등도 구상중이다.

이밖에 교육사업으로 인재육성 기금 60억원 조성을 비롯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밤과 후학교 및 외국어 교육 지원·친환경 산물 무상급식 확대 등이 있다.

서 군수는 “주민들은 군수에게 당선돼 행정의 안정속에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민 화합과 단결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경기자 lk5826@

온천랜드·골프장 조성 일자리 1000개 창출

섬진강·지리산에 레포츠 시설 대폭 늘릴것

업과 온천랜드 개장·골프장 조성 등으로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조성중인 ‘화가마을’ 같은 문인촌과 5개 구의 전원마을들을 조성, 도시민을 유입시킨다는 전략이다.

교育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학생의 공무원 특제와 무상급식·외국어 어교육 지원·대학생 등록금 지원·교육환경 개선 등이 있다.

지리산은천에서 노고단까지 4.5km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 사업은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서와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산온천 골프장 조성사업의 조성 등으로 일자리 1000개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조성중인 ‘화가마을’ 같은 문인촌과 5개 구의 전원마을들을 조성, 도시민을 유입시킨다는 전략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학생의 공무원 특제와 무상급식·외국어 어교육 지원·대학생 등록금 지원·교육환경 개선 등이 있다.

</div